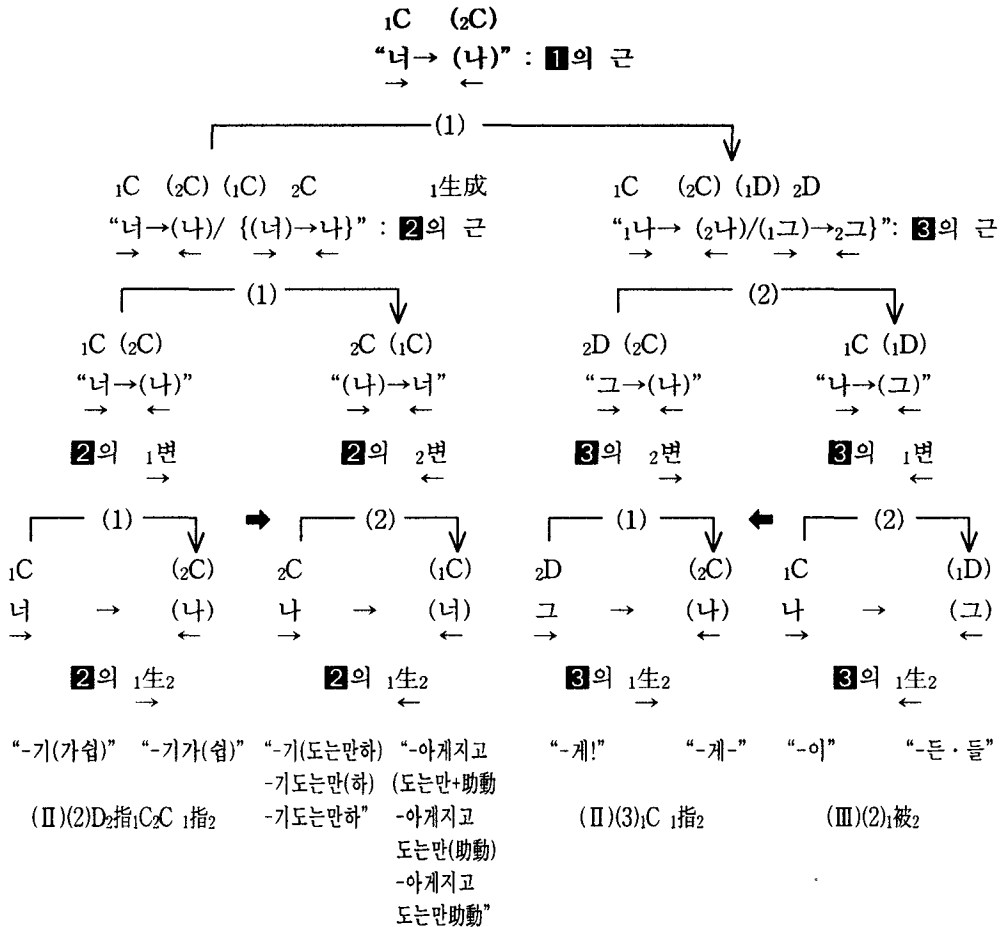


複合적 一般형태론(III) 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組織 (2) :

*주의 : *앞과 같은 주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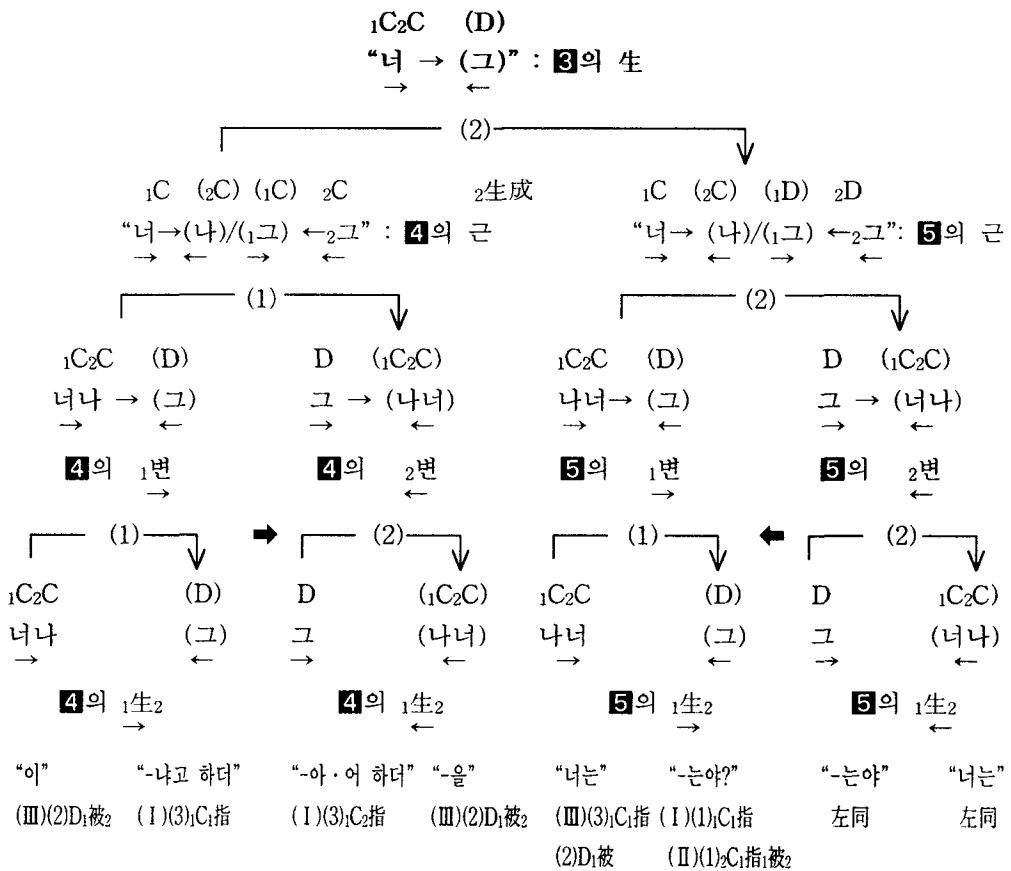
<屈인칭>



“-기(가쉽)” “-기가(쉽)” “-기(도는만하)” “-아게지고
-기도는만(하) (도는만+助動
(II)(2)D₂指₁C₂C₁指₂ -기도는만하” -아게지고
도는만(助動) -아게지고
-아게지고
도는만助動”

(II)(2)D₁指₁C₂指₂C₁指

〈動인칭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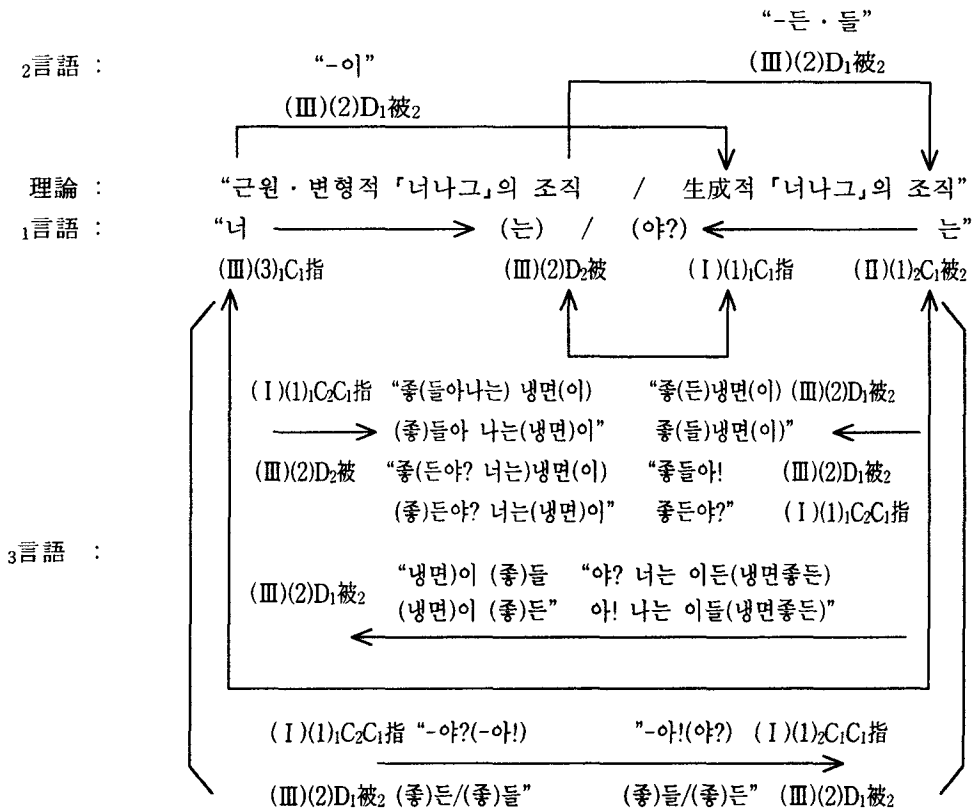


單一적 内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複合적 일반형태론(III)단계”의 ↑ 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↓ 變으로 한, *뒤 複合적 内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직전단계(*주의: ↓[生])

*앞 5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형과 生成은 그 外形이 같으므로 그 중에서 이 단계 즉 말이 되는 言語化의 첫 단계로서의 主觀動詞文단계에 맞는 변형 즉 “-이/든·들”을 택한다.).

*주의 : * 뒤 : “1 → 5”식 人稱표기 참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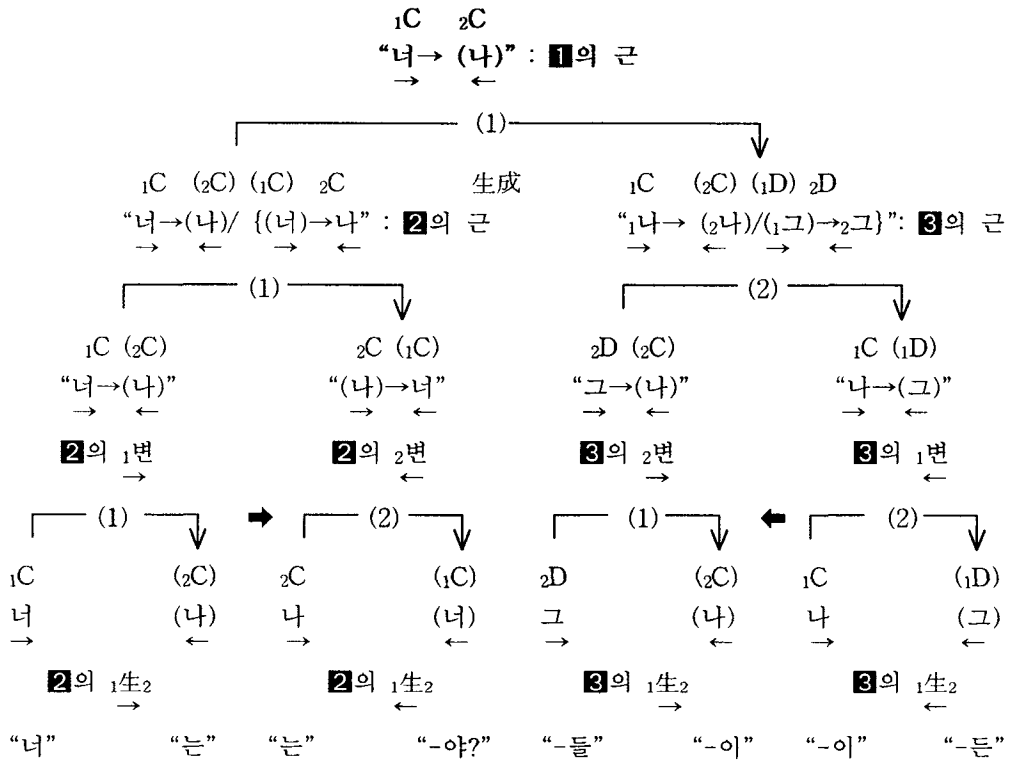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內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指示(屈-動-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-이 ; “나” → -든, 들 ; “그” → -이든들 로 읽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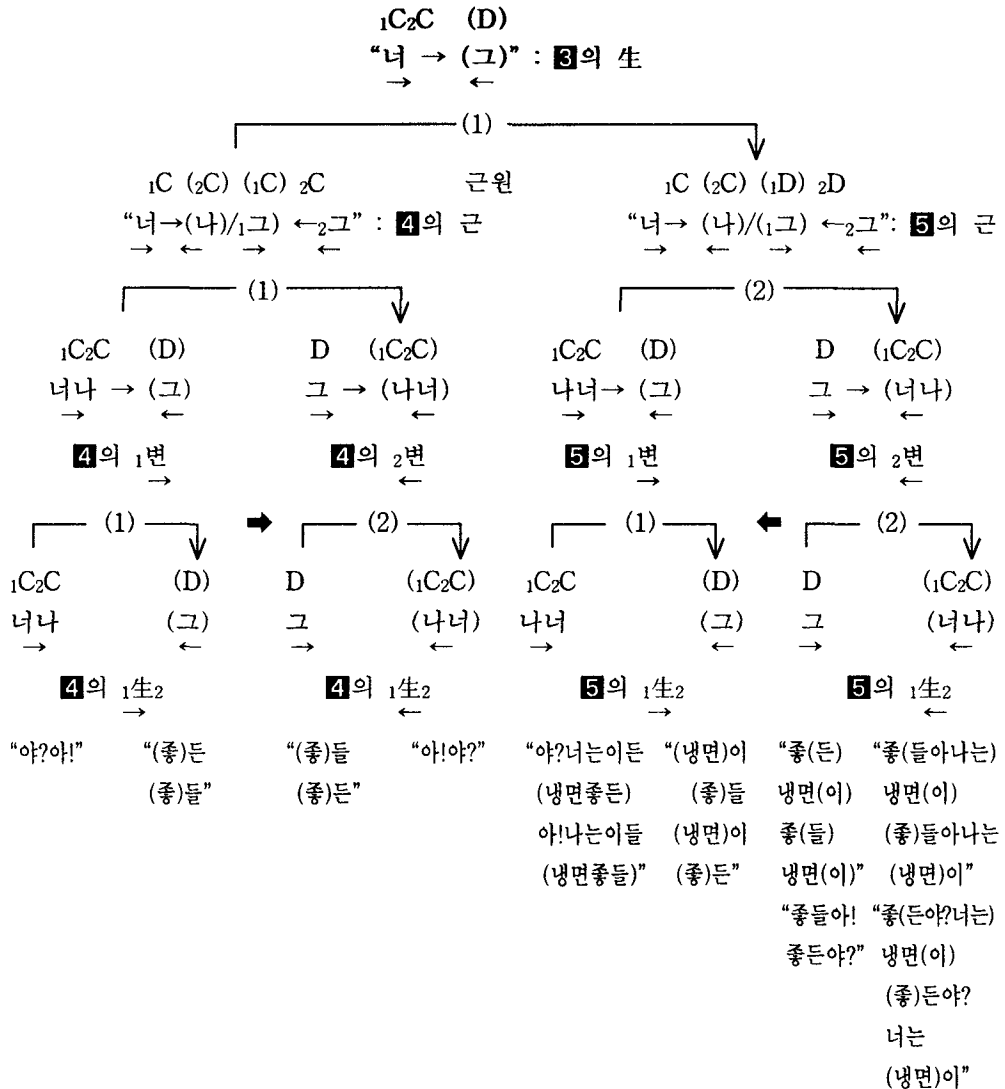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單一적 內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指示(屈-動-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〈屈인칭〉



<動인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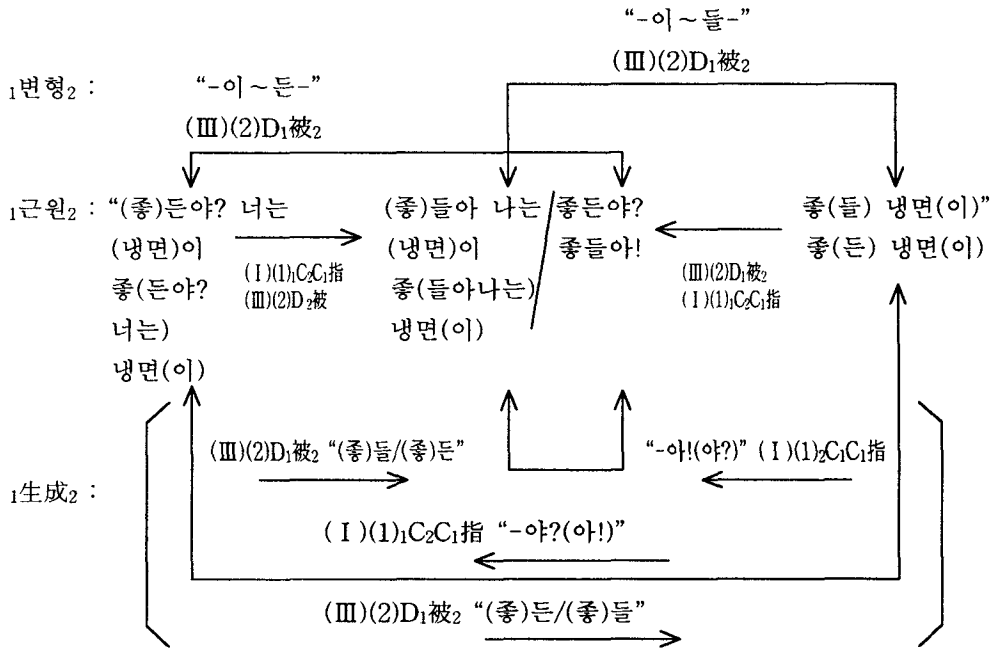


複合적 內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橫對角線적 표기 :

*앞 “單一적 內部통사론(I)/(II)단계”의 ↑ 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 逆方向의 ↓^근 변 으로 한, *뒤 單一적 內部통사론(III)단계 직전단계.

*주의 : 변형은 *앞 단계의 []안의 ↓^근 변의 “변” 중에서 複合助詞적 “-이 ~ 든 / -이 ~ 들”을 택함.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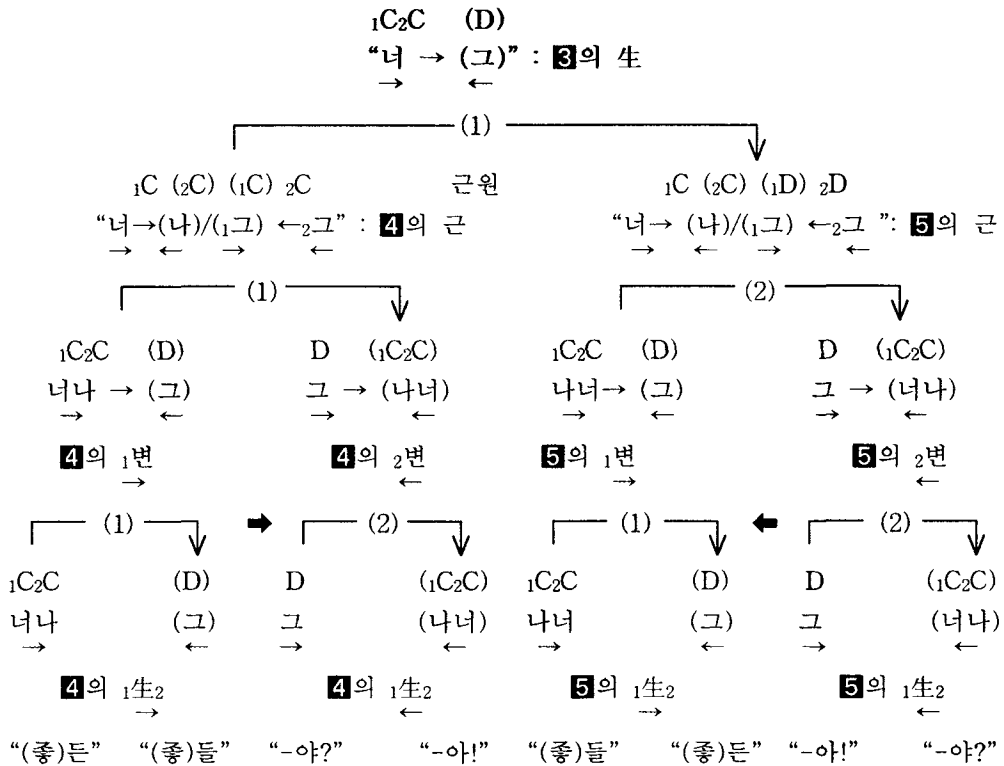


複合적 內部통사론(I)/(II)단계의 指示(屈-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-이든 ; “나” → -이들 ; “그” → -이든들 로 읽음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〈動인칭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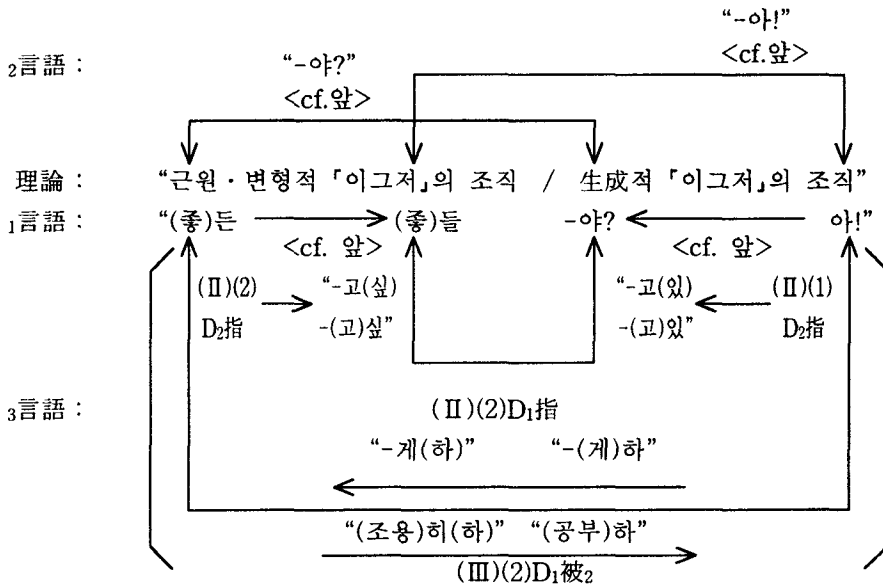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内部통사론(Ⅲ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複合적 内部통사론(Ⅰ)/(Ⅱ)단계의 ↑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 그 順序를 그

와 逆方向의 ↓ 變으로 한, *뒤 “複合적 内部통사론(Ⅲ)단계”의 직전단계.
 ↓ [生]

*주의 : [] 안의 “조용히하/공부하” “-게하”는 “-아!”적(=“저”적)動詞에 해당하고,
 “-고싶/-고있”은 “-아?”적(=“이·그”적)動詞에 해당됨.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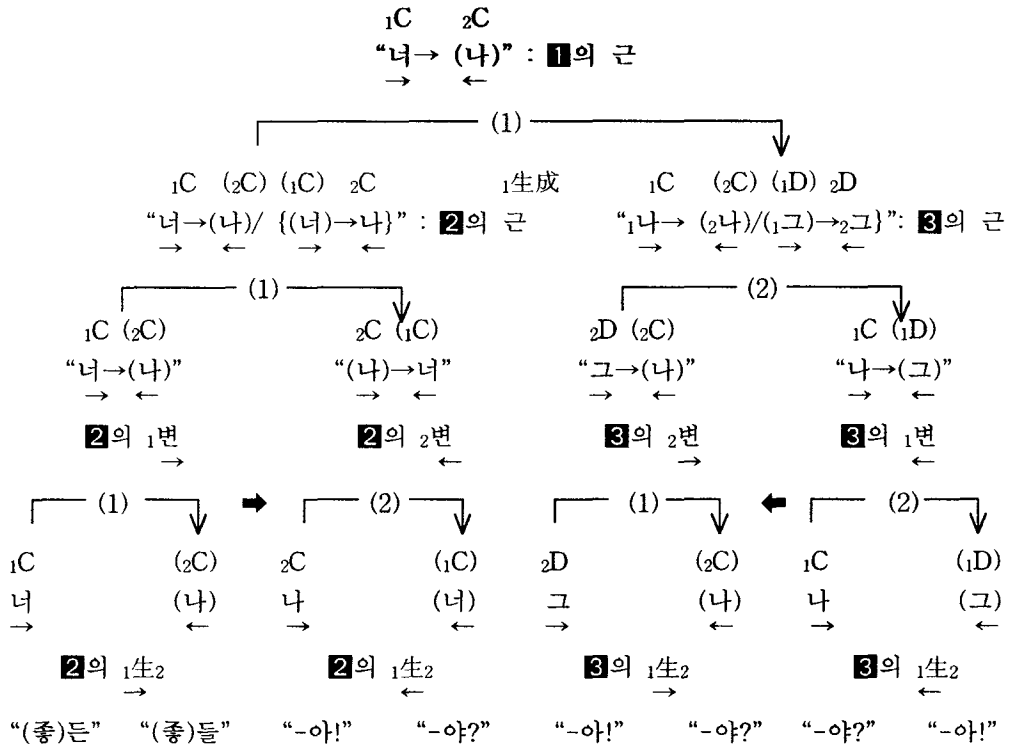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内部통사론(Ⅲ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₂에서 “너” → 아? ; “나” → 아! ; “그” → 아?야! 로 읽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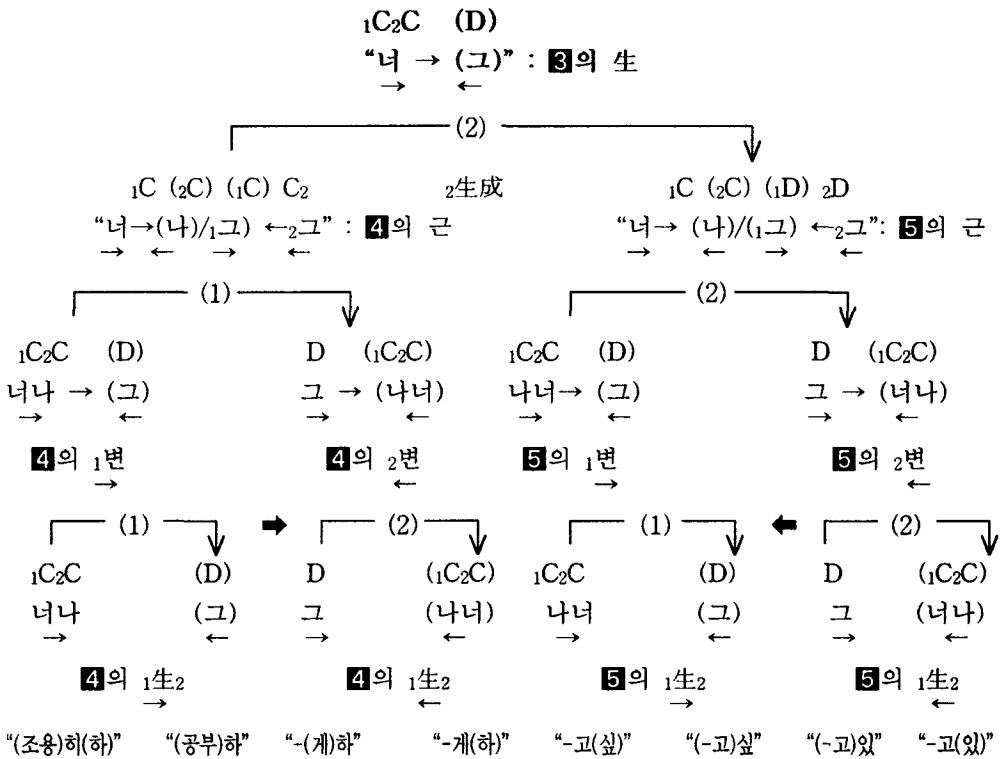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單一적 內部통사론(Ⅲ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〈屈인칭〉



〈動인칭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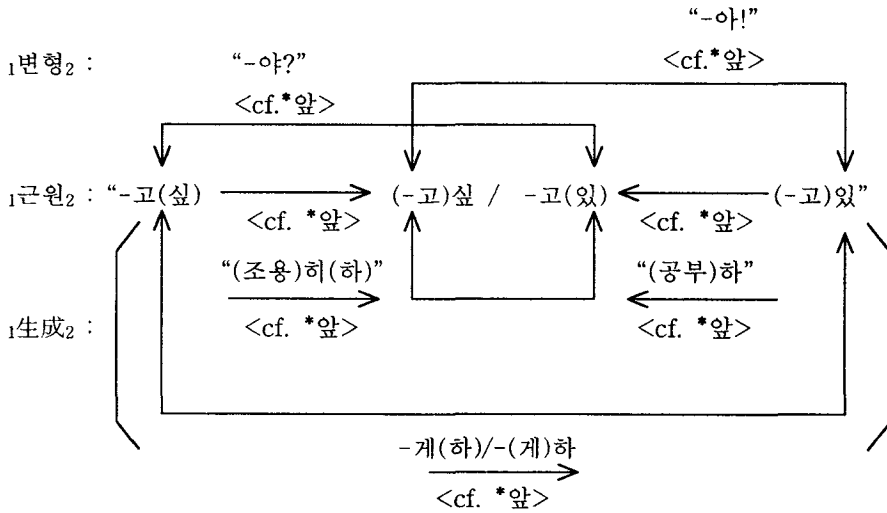
複合적 內部통사론(Ⅲ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單一적 內部통사론(Ⅲ)단계”의 ↑ [] 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 그 순서를 그와

逆方向的 $\begin{matrix} \downarrow \\ \text{변} \\ \downarrow \end{matrix}$ 으로 한, *뒤 “外部통사론(Ⅰ)/(Ⅱ)단계”의 직전단계.
 \downarrow [生]

*주의 : []안의 “(조용)히(하)/(공부)하”는 “-야?”적(=“이그”적)動詞에, “-게(하)/-(계)하”는 “-아!”적(=“저”적)動詞에 해당함.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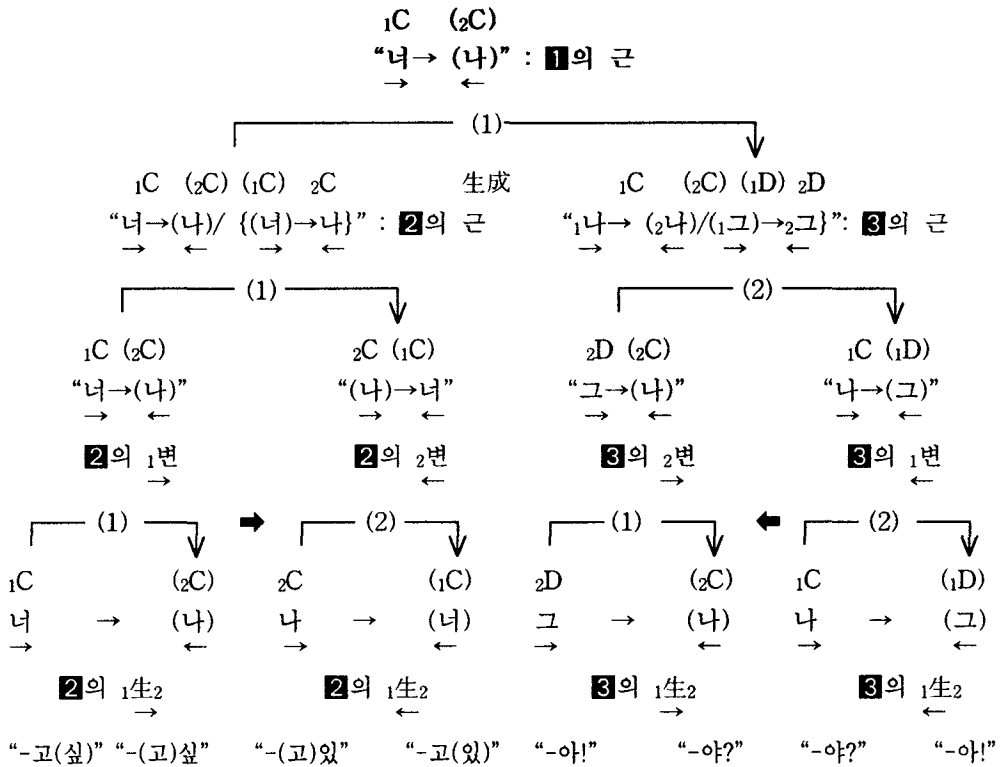
複合적 內部통사론(Ⅲ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-야? ; “나” → -아! ; “그” → -야?아! 로 읽음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複合적 内部통사론(Ⅲ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〈屈인칭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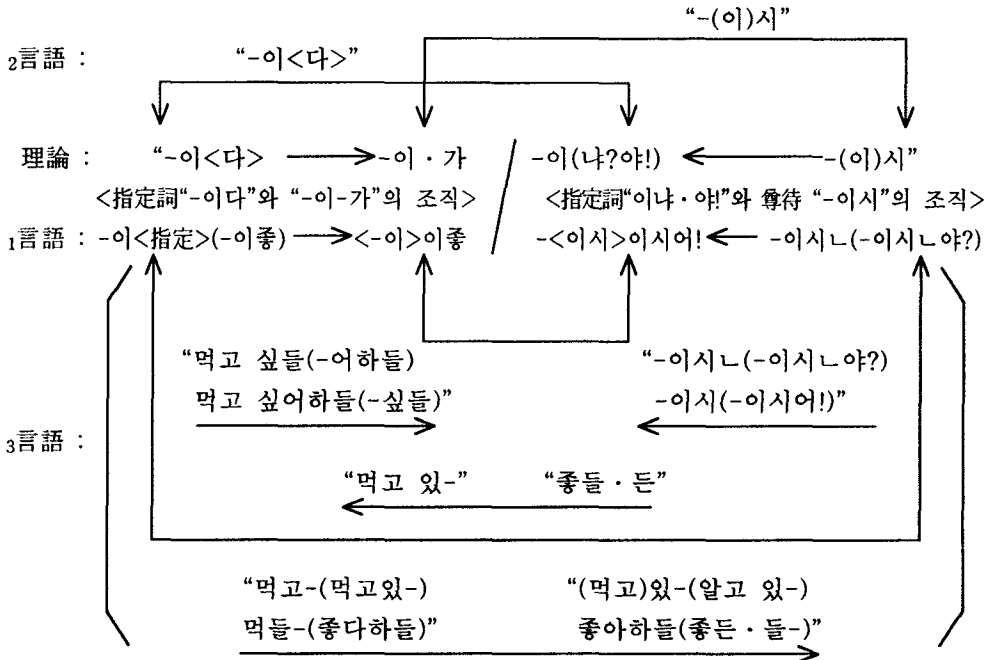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“複合적 内部통사론(III)단계”의 ↑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어나고 순서를 그와

逆方向의 ↓
 變으로 바꾼, *뒤 “複合적 外部통사론(I)단계”의 직전단계.
 [生]

*주의 : *앞 단계의 “(조용)히(하)/(공부)하”는 각각 “尊待零(0)적·이<다>적 「-든·들」 動詞/「-고」 動詞”로 바뀌고, “-게(하)/-(게)하”는 “尊待有적 「-시」 動詞/尊待零적 「-고·-들」 動詞”로 바뀐.

그 “바뀐”의 첫째 이유는 이 단계가 “尊待”의 출발단계여서, 그 尊待의 근원이 되는 動詞가 指定詞 「이(다)」라는데 있고, 둘째 이유는 이 단계의 外形상의 「근원」이 되는 *앞 “單一적 内部통사론(III)단계”의 生成단계가 “「-고」 動詞/「-든·들」 動詞”의 조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(*앞 참조).

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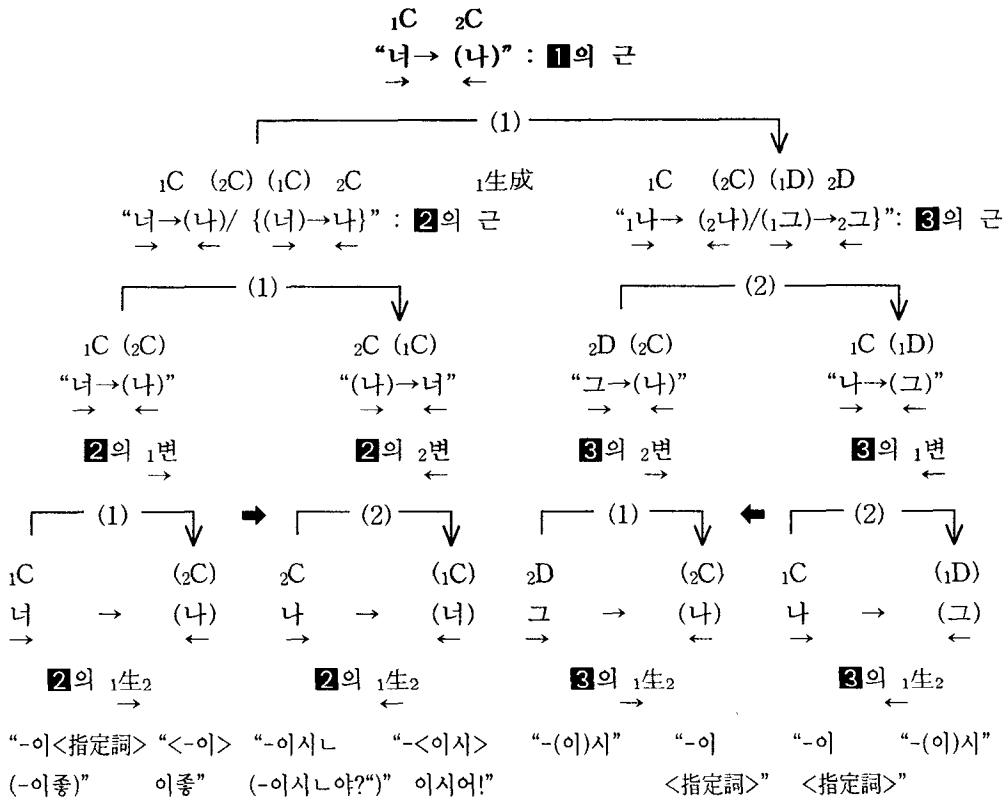
單一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1) :

*주의 : 아래 표기 1生2에서 “너” → -이(다) ; “나” → -(이)시 ; “그” → -이시 로 읽음.

*주의 : *앞(pp. 40~41) “指示(=거부/同形化) → 被指示(=피거부/被同形化)”적 人稱의 기본조직 (1)과 같음(이하 모두에 해당됨).

單一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指示(屈-/動-/代-)적 人稱의 조직 (2) :

〈屈인칭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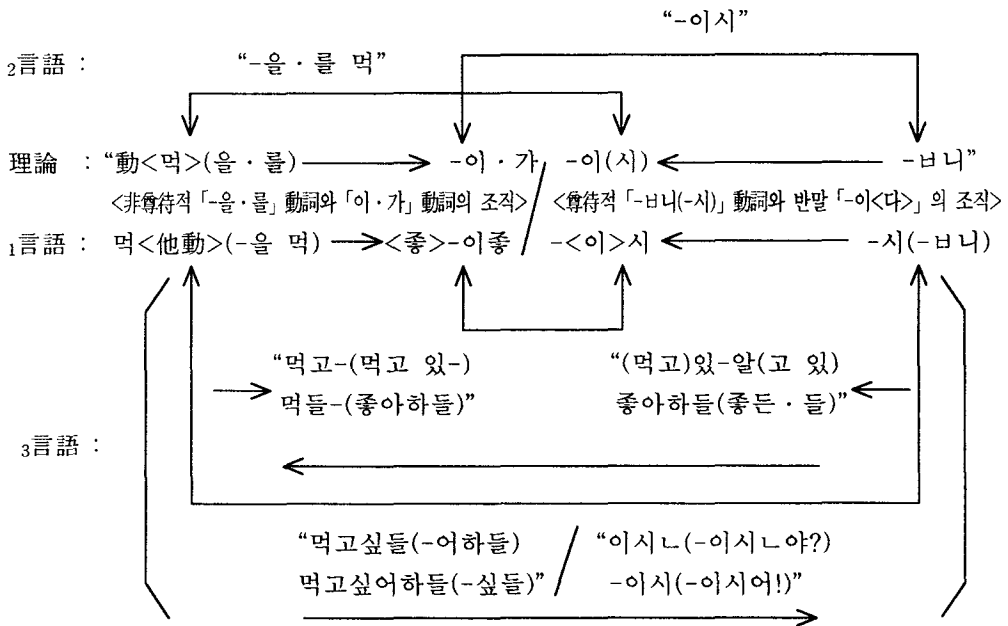


複合적 外部통사론(I)단계의 橫對角線적 言語표기 :

*앞 : “單一적 外部통사론(I)단계”의 ↑[]안의 生成단계의 []를 벗기고 그 순서를

그와 逆方向의 $\begin{matrix} \downarrow \\ \text{[生]} \end{matrix}$ 근 변으로 바꾼, *뒤 “外部통사론(II)단계”의 직전단계.

*주의 : *앞 단계의 []안의 生成단계의 “변형”(맨 밑에서 둘째의 ←단계) 즉 : “먹고 있-/좋들·든”은 각각 새로운 “변형” : “-을·를(먹)/-버니 -시”로 바뀜. 그 이유는 *아래 그림의 “理論”단계에서 「반말」로서의 “-을·를”動詞와 “-이·가”動詞의 짝이 尊待로서의 指定詞 “-이(시)”와 “-버니”動詞가 이루는 짝과 짝을 짓고 있는데 있다.(그리고 그 “짝”은 *앞 단계의 “理論”의 具體化이다).



*주의 : *뒤 : “**1** → **5**”식 人稱표기 참조.